

매일 미사 전례 독서

2016년 8월

신심 미사

자비의 모후이시며 어머니이신 성 마리아

제1독서 <주님,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 에스테르기의 말씀입니다.

4,17㉔,17㉕-17㉖,17㉗-17㉘

그 무렵 17㉔ 에스테르 왕비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17㉕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17㉖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17㉗ 저는 날 때부터 저의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 주셨음을 들었습니다.

17㉘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17㉙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17㉚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루카 1,46ㄴ-48ㄴ,48ㄴ-49,50-51,52-53,54-55(◎ 50 참조)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주님의 자비는 세세 대대로 미치리라.

<이어지는 찬가는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
-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존귀하신 세상의 모후,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님, 인류의 구세주를 낳으셨으니, 저희를 위하여 평화와 구원을 빌어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인 잔치에 계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

그때에 ¹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²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³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⁵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⁶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들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⁷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⁹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¹⁰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¹¹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일 월요일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기념일

제1독서 <하난야,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8,1-17

¹ 유다 임금 치드키야의 통치 초기 제사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이며 아쭈르의 아들인 하난야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

²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명예를 부수기로 하였다. ³ 두 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 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 놓겠다.

⁴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קים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녕 바빌론 임금의 명예를 부수겠다.’”

⁵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 주님의 집 안에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난야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⁶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 주시기를 바라오.

⁷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 보시오. ⁸ 예로부터, 나와 당신에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⁹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오.”

¹⁰ 그러자 하난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명예를 벗겨 내어 부수었다. ¹¹ 그리고 나서 하난야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두 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명예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 ¹² 하난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명예를 벗겨 부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¹³ “가서 하난야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무 명예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명예를 만들었다.’ ¹⁴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명예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15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난야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하난야,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16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 버리리니, 올해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17 하난야 예언자는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29.43.79.80.95.102(◎ 68ㄴ 참조)

- ◎ 주님,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 저를 거짓의 길에서 멀리하시고,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
- 당신 법규에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씀을 제 입에서 결코 거두지 마소서. ◎
- 당신을 경외하는 이, 당신 법을 아는 이 모두 저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
- 당신 법령 안에서 제 마음 흠 없게 하소서. 제가 부끄럽지 않으리이다. ◎
- 악인들이 저를 없애려 노리지만, 저는 당신 법을 마음에 새기나이다. ◎
- 당신이 저를 가르치셨기에, 당신 법규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4,4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균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3-21

그때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13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균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나섰다.

1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균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균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16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17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⁸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¹⁹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²⁰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²¹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일

연중 제18주간 화요일

제1독서 <네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내가 야곱의 천막을 되돌려 주리라.>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0,1-2.12-15.18-22

¹ 주님께서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²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¹² — 주님께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¹³ 네 종기에 치료 약이 없고,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

¹⁴ 네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네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¹⁵ 어찌하여 내가 다쳤다고, 네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네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¹⁸ 주님께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 주고 그의 거처를 가없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 ¹⁹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²⁰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²¹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22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2(101),16-18.19-21.29와 22-23(◎ 17)

- ◎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리이다.
- 민족들이 주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이 당신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어, 험벗은 이들의 기도를 굽어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 ◎
-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글로 남기리니, 새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이 드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니,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 주시리라. ◎
- “당신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 후손은 당신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 주님이 시온에서 당신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찬양을 전하시리라. 그 때에 백성들과 나라들이, 주님을 섬기러 모여들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49 참조

- ◎ 알렐루야.
-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 ◎ 알렐루야.

복 음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2-36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²²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²³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²⁴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²⁵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²⁶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²⁷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²⁸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 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31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 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2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34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35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36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시오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3일

연중 제18주간 수요일

제1독서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1,1-7

1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3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4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네가 일어서리라. 네가 다시 손복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5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

6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

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예레 31,10.11-12ㄱ,13(◎ 10ㄹ 참조)

- ◎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리라.
-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흠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
-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 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
-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도 노인도 함께 즐기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

복음 환호송

루카 7,16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21-28

그때에 ²¹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²²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²³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²⁴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²⁵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²⁷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²⁸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4일 목요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제1독서 <나는 새 계약을 맺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1,31-34

³¹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³²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³³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 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³⁴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1(50),12-13.14-15.18-19(◎ 12-7)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6,18 참조

-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23

¹³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¹⁴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¹⁵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¹⁶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⁷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냐,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¹⁸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¹⁹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²⁰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²¹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²²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²³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5일

연중 제18주간 금요일

제1독서 <불행하여라, 피의 성읍!>

▮ 나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1.3; 3,1-3.6-7

¹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유아, 축일을 지내고 서원을 지켜라. 불한당이 다시는 너를 넘나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하였다.

3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 버렸지만,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처럼 야곱의 영예를 되돌려 주시리라.

3.1 불행하여라, 피의 성읍! 온통 거짓뿐이고 노획물로 가득한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다. ² 채찍 소리, 요란하게 굴러 가는 바퀴 소리, 달려오는 말, 튀어 오르는 병거, ³ 돌격하는 기병, 번뜩이는 칼, 번쩍이는 창, 수없이 살해된 자들, 시체 더미, 끝이 없는 주검. 사람들이 주검에 걸려 비틀거린다.

6 나는 너에게 오물을 던지고 너를 욕보이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⁷ 너를 보는 자마다 너에게서 달아나며, “니네베가 망하였다! 누가 그를 가없이 여기겠느냐?” 하고 말하리니,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해 줄 자들을 찾으랴?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신명 32,35ㄷㄷ과 36ㄷㄷ.39ㄱㄴㄷㄷ.41(◎ 39ㄷ)

- ◎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재난이 삽시간에 닥친다. 주님은 당신 백성의 권리를 감싸 주시며, 당신 종들을 가없이 여기시리라. ◎
- 이제 너희는 보아라!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나 말고는 하느님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한다. ◎
- 번뜩이는 칼을 갈아 날을 세우고,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할 때, 적대자들에게 복수하고, 원수들에게 되갚으리라. ◎

복음 환호송

마태 5,10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24-28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²⁵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27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6일 토요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제1독서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9-10.13-14<또는 2베드 1,16-19>

9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10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종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13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앉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14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7(96),1-2.5-6.9(◎ 1ㄱ과 9ㄱ)

- ◎ 주님은 임금이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 주님은 임금이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 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
-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
-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7,5

- ◎ 알렐루야.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8L-36

그때에 ²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²⁹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³⁰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³¹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³²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³³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³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³⁵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³⁶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7일
연중 제19주일

제1독서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8,6-9

해방의 날 ⁶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⁷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⁸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⁹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써 조상들의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1과 12.18-19.20과 22(◎ 12ㄴ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골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1-2.8-19<또는 11,1-2.8-12>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형제 여러분, ¹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제들의 확증입니다. ²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⁸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⁹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¹⁰ 하느님께서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¹¹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 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¹²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¹³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 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¹⁴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¹⁵ 만일 그들이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¹⁶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¹⁷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사악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¹⁸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서는 일찍이, “이사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¹⁹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악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24,42,44 참조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2-48<또는 12,35-40>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³²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³³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 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쫓이 쫓지도 못한다. ³⁴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36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37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39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 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41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42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43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46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48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8일 월요일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제1독서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2-5.24-28ㄷ

제삼십년 넷째 달² 초닷셋날, 곧 여호아킨 임금의 유배 제오년에,³ 주님의 말씀이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즈의 아들 예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

⁴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이 밀려드는데, 그 광채 한가운데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불이 같은 것이 보였다.

⁵ 또 그 한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²⁴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날갯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소리 같았으며, 군중의 고함 소리, 진영의 고함 소리 같았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²⁵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²⁶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어좌 형상이 있고, 그 어좌 형상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앉아 있었다.

²⁷ 내가 또 바라보니,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은 빛나는 금불이와 같고, 사방이 불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은 불처럼 보였는데, 사방이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²⁸ 사방으로 뻗은 광채의 모습은, 비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8,1ㄴㄷ-2,11-13ㄱ,13ㄷ-14ㄱㄷ

- ◎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주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홀로 높으시다. ◎
- 주님의 위엄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 그분이 당신 백성 위하여 뿔을 높이셨네.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 그분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양하여라. ◎

복음 환호송

2테살 2,14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되살아날 것이다.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22-27

제자들이 ²² 갈릴래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²³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²⁴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²⁵ 베드로가 “네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²⁶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²⁷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 스타테르 한 닢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뚝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9일

연중 제19주간 화요일

제1독서 <그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 주시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8-3,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⁸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먹어라.” ⁹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쳐 있는데, 거기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¹⁰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 보이시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었다.

^{3,1}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보는 것을 받아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²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주시며, ³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⁴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 집안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14.24.72.103.111.131(◎ 103ㄱ 참조)

- ◎ 주님, 당신 말씀 제 혀에 달콤하옵니다.
- 온갖 재산 다 얻은 듯, 당신 법의 길 걸으며 기뻐하나이다. ◎
- 당신 법이 저의 즐거움, 그 법은 저의 조연자이옵니다. ◎
-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
- 당신 말씀 제 혀에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씀 제 입에 꿀보다 다옵니다. ◎
- 당신 법은 제 마음의 기쁨, 영원히 저의 재산이옵니다. ◎
- 당신 계명을 열망하기에, 저는 입을 벌리고 헐떡이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1,29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5.10.12-14

¹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²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고 ³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⁵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¹⁰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¹²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13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0일 수요일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9,6-10

형제 여러분, ⁶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들이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들입니다. ⁷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시오.

⁸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⁹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¹⁰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곱절로 늘려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2(111),1ㄴㄷ-2,5-6,7-8,9(◎ 5ㄱ)

- ◎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는 이!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
-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
-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그 마음 굳

- 세어 두려워하지 않으니, 마침내 적들을 내려다보리라. ◎
-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24-2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²⁵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²⁶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1일 목요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제1독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가거라.>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2,1-12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² “사람의 아들이야, 너는 반항의 집안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³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이야, 유배 짐을 꾸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가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거라. 행여 자기들이 반항의 집안임을 그들이 깨달을지도 모른다. ⁴ 너는 짐을 유배 짐처럼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어놓았다가, 저녁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떠나듯이

떠나라.

⁵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벽을 뚫고 나가라. ⁶ 너는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예표로 삼았다.”

⁷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였다. 짐을 유배 짐처럼 싸서 대낮에 내어놓았다가, 저녁에 손으로 벽을 뚫고,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

⁸ 이튿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⁹ “사람의 아들이, 저 반항의 집안인 이스라엘 집안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¹⁰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신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장과 그 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 관한 것이다.’

¹¹ 너는 또 말하여라. ‘나는 여러분을 위한 예표입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유배를 당해 끌려갈 것입니다.’ ¹² 그들 가운데에 있는 수장은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그를 내보내려고 벽에 뚫어 놓은 구멍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78(77),56-57,58-59,61-62(◎ 7ㄴ 참조)

-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시험하고, 그분께 반항하며,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네. 그들의 조상들처럼 등 돌려 배신하고, 뒤틀린 활처럼 어긋나 버렸네. ◎
- 산당을 지어 그분의 화를 돋우고, 우상을 세워 그분을 진노케 하였네. 하느님은 들으시고 격노하시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네. ◎
- 당신의 힘을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적의 손에 내주셨네. 당신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당신 소유에게 격노하셨네. ◎

복음 환호송

시편 119(118),135

-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21—19,1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썸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24 임금이 썸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7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멍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31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렸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34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19.1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금요일

제1독서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너는 불륜을 저질렀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6,1-15.60.63<또는 16,59ㄴ-63>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 주어라. ³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4 네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네가 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 주지 않고, 물로 네 몸을 깨끗이 씻어 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 주지 않았다.

5 너를 애처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 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네가 나던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 버렸다.

6 그때에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으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으로 누워 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⁷ 그리고 나서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젓가슴은 또렷이 드러나고 털도 다 자랐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별거벗은 알몸 똥이었다.

8 그때에 내가 다시 네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네 알몸을 덮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9 나는 너를 물로 씻어 주고 네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기름을 발라 주었다. ¹⁰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 주었고, 아마포 띠를 매어 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 주었으며, ¹¹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다.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고, ¹²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 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13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아마포 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고서, 고운 곡식 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왕비 자리에 까지 오르게 되었다.

14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 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15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아무하고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

60 그러나 나는 네가 어린 시절에 나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⁶³ 이는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네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이사 12,2-3.4ㄴㄷㄹ.5-6(◎ 1ㄹ 참조)

- ◎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이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복음 환호송

1테살 2,13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3-12

그때에 ³ 바리사이드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⁵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⁶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는 안 된다.”

⁷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⁹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¹⁰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¹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¹²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토요일

제1독서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8,1-10-1,13-30-32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²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이 이가 시다.’는 속담을 말해 대느냐?

³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⁴ 보아라, 모든 목숨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도 자식의 목숨도 나의 것이다. 죄지은 자만 죽는다.

⁵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⁶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달거리하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으며, ⁷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며, 강도 짓을 하지 않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 주고, ⁸ 변리를 받으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고 불의에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판결을 내리면서, ⁹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진실하게 지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¹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면, ¹³ 아들이 살 것 같으나? 그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³⁰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

³¹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³²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1(50),12-13.14-15.18-19(◎ 12-7)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13-15

¹³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¹⁴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¹⁵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4일
연중 제20주일

제1독서 <어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예레 15,10).>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8,4-6.8-10

그 무렵 ⁴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⁵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⁶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⁸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⁹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¹⁰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른 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0(39),2ㄱ.2ㄷ-3.4.18(◎ 14ㄴ)

-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2독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4

형제 여러분, ¹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²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여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³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⁴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49-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⁴⁹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⁵⁰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⁵¹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⁵²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⁵³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4일 주일 전야 미사

(8월 14일 저녁, 대축일 제1 저녁 기도 전후에 이 미사를 드린다.)

제1독서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 역대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5,3-4.15-16; 16,1-2

그 무렵 ³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또한 ⁴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도 모아들었다.

¹⁵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¹⁶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온 이스라엘은 ^{16,1}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²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2(131),6-7,9-10.13-14(◎ 8 참조)

- ◎ 일어나소서, 주님, 권능의 궤와 함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 보라,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소식을 듣고, 야아르 들에서 그 궤를 찾았노라. 우리 그분 거처로 들어가, 그분 발판 앞에 엎드리세. ◎
-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당신 종 다윗을 보시어,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
-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이곳은 길이 쉴 나의 안식처,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 ◎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54L-57

형제 여러분, ⁵⁴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⁵⁵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⁵⁶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11,28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는 행복합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7-28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²⁷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²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5일 월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

제1독서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1,19ㄱ; 12,1-6ㄱ다.10ㄱ다

¹⁹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 궤가 나타났습니다. ^{12,1}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²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³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⁵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여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⁶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습니다.

10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5(44),10.11.12.16(◎ 10ㄷㄹ)

-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2독서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20-27ㄱ

형제 여러분, ²⁰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²¹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²²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²³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²⁴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²⁵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²⁶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²⁷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 알렐루야.

복 음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9-56

39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47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48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51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 습니다. 52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53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54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55 우리 조상 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6일

연중 제20주간 화요일

제1독서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8,1-10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 “사람의 아들이여, 티로의 군주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자리에,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고 말한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3 과연 너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어떤 비밀도 너에게는 심오하지 않다. 4 너는 지혜와 슬기로 재산을 모으고,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았다.

5 너는 그 큰 지혜로 장사를 하여 재산을 늘리고는,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6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네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7 그러므로 나 이제 이방인들을, 가장 잔혹한 민족들을 너에게 끌어들이리니, 그들이 칼을 빼 들어, 네 지혜로 이룬 아름다운 것들을 치고, 너의 영화를 더럽히며, 8 너를 구덩이로 내던지리라.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9 너를 학살하는 자 앞에서, 네가 감히 '나는 신이다.'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너를 살해하는 자들의 손에 달린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10 너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리라. 정녕 내가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신명 32,26-27,28과 30.35ㄷㄷ과 36ㄷㄷ(◎ 39ㄷ)

- ◎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 나는 생각하였다. “그들을 산산조각 내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 버리리라.” 그러나 원수가 뿔낼까 보아, “우리 손이 더 강하였다. 이 모든 것을 한 이는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적들이 착각할까 보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 정녕 이 백성은 생각이 없고, 슬기가 없는 자들이다. 바위이신 분이 그들을 팔아 버리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만 명을 몰아낼 수 있으랴? ◎
-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재난이 삽시간에 닥친다. 주님은 당신 백성의 권리를 감싸 주시며, 당신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

복음 환호송

2코린 8,9 참조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23-30

그때에 ²³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려울 것이다. ²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²⁵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²⁷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²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르던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²⁹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³⁰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7일

연중 제20주간 수요일

제1독서 <나는 내 양 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 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4,1-11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3 그런데 너희는 젖을 짜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으며 살진 놈을 잡아먹으면서, 양 떼는 먹이지 않는다. ⁴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복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 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 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5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6 산마다, 높은 언덕마다 내 양 떼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 내 양 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다.

⁷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⁸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양 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양 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 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 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⁹ 그러니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¹⁰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에게 내 양 떼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 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 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 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 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¹¹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3(22),1-3 ㄱ.3ㄴㄷ-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복음 환호송

히브 4,12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¹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²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

으로 보냈다.

3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4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값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5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6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7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9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10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11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12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피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13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14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15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16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8일

연중 제20주간 목요일

제1독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영을 넣어 주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6,23-2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23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24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25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26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27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28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1(50),12-13,14-15,18-19(◎ 예제 36,25 참조)

- ◎ 정결한 물을 뿌려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받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복음 환호송

시편 95(94),7,8

- ◎ 알렐루야.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 알렐루야.

복 음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1-14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¹ 말씀하셨다.

²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³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⁴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

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⁵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⁶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⁷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⁸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⁹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¹⁰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¹¹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¹²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¹³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¹⁴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금요일

제1독서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온 이스라엘 집안인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내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7,1-14

그 무렵 ¹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²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³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⁴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⁵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⁶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갓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⁷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⁸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갓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⁹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이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¹⁰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¹¹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¹²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¹³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¹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7(106),2-3.4-5.6-7.8-9(◎ 1 참조)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말하여라, 주님이 구원하신 이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북녘과 남녘, 못 나라에서 모으신 이들은 말하여라. ◎
- 사막과 광야에서 그들은 헤매며,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하였네. 굶주리고 목말라, 목숨이 다하였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네. 그들을 바른길로 견게 하시어,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게 하셨네. ◎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

복음 환호송

시편 25(24),4.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34-40

그때에 ³⁴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³⁵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³⁶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³⁷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³⁸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³⁹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⁴⁰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0일 토요일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제1독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43,1-7ㄷ

천사가 ¹ 나를 대문으로,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데리고 나갔다. ²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³ 그 모습은 내가 본 환시, 곧 그분께서 이 도성을 파멸시키려 오실 때에 내가 본 환시와 같았고, 또 그 모습은 내가 크바르 강 가에서 본 환시와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⁴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⁵ 그때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⁶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주님의 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⁷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사람의 아들이야, 이곳은 내 어좌의 자리, 내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곳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5(84),9-11과 10.11-12.13-14(© 10- 참조)

- ◎ 주님 영광 우리 땅에 머물리라.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오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복음 환호송

마태 23,9.10 참조

-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 알렐루야.

복 음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1-12

- 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2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3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 4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 5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6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7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 8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9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10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11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1일
연중 제21주일

제1독서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데려오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18-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8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려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19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쫓, 활 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아완 등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게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20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1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7(116),1,2ㄱ,ㄴ(◎ 마르 16,15 참조)

-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2독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5-7.11-13

형제 여러분, ⁵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⁶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⁷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¹¹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

¹²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¹³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고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2-30

그때에 ²²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²³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²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²⁵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²⁶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²⁷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²⁸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²⁹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³⁰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2일 월요일
등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제1독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시작입니다. 1,1-5.11-12

¹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²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³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 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⁵ 이는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¹¹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¹²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6(95),1-2-7.2-3.4-5(◎ 3 참조)

-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들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주님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우신 분이시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은 하늘을 지으셨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 음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이>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13-22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3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 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¹⁴⁾

15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16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이!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¹⁷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 무엇이 더 중요하나?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18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¹⁹ 눈먼 자들이! 무엇이 더 중요하나?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20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²¹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²²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3일

연중 제21주간 화요일

제1독서 <여러분이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말씀입니다.

2,1-3,14-17

1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²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³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14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¹⁵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¹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¹⁷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6(95),10.11-12.13(© 13년 참조)

- ◎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입니다. 우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복음 환호송

히브 4,12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 알렐루야.

복 음 <십일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한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23-26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²³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²⁴ 눈먼 인도자들이!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 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²⁵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²⁶ 눈먼 바리사이!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4일 수요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제1독서 <그 초석들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9ㄴ-14

천사가 나에게 ⁹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

¹⁰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¹¹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¹²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¹³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¹⁴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10-11.12-13ㄴ.17-18(◎ 12 참조)

- ◎ 주님, 성인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49 참조

- ◎ 알렐루야.
-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 ◎ 알렐루야.

복 음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5-51

그때에 ⁴⁵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⁴⁶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⁴⁷ 예수님께서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⁴⁸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⁴⁹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⁵⁰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⁵¹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5일

연중 제21주간 목요일

제1독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시작입니다. 1,1-9

¹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²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³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⁴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⁵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⁶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⁷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⁸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⁹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2-3,4-5,6-7(◎ 1ㄴ 참조)

- ◎ 주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으라. ◎
- 세대가 세대를 이어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업을 널리 전하리이다. 당신의 위엄 그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기적을 노래하리이다. ◎
- 경외로운 당신 업적 그 위력을 말하고, 당신의 크나큰 위업을 선포하리이다. 넘치는 당신 은혜를 기억하고 알리며,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리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24,42,44 참조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42-5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⁴² “깨어 있으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⁴³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⁴⁴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⁴⁵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⁴⁶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⁴⁷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⁴⁸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⁴⁹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⁵⁰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⁵¹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6일

연중 제21주간 금요일

제1독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7-25

형제 여러분, ¹⁷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⁸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¹⁹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 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 버리리라.”

²⁰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²¹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²²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²³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²⁴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²⁵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1-2.4-5.10-11(◎ 5ㄴ 참조)

- ◎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의인들이여,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주님은 민족들의 의지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흠으신다. 주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지고, 그 마음속 계획은 대대로 이어진다. ◎

복음 환호송

루카 21,36 참조

-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¹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²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³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⁴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⁵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⁶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⁷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⁸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⁹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¹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¹¹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¹²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¹³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7일 토요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6-31

²⁶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니다.

27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28 하느님께서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29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0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31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12-13,18-19,20-21(◎ 12ㄴ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 기뻐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가 신뢰하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4-3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나? 27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28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8일
연중 제22주일

제1독서 <너를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17-18,20,28-29

17 **애야,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18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20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28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29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8(67),4와 5ㄱㄷ.6-7ㄱㄴ.10-11(◎ 11ㄴㄷ 참조)

-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

제2독서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8-19,22-24ㄱ

형제 여러분, 18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19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22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23 **하늘에 등록된 만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24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1,29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 알렐루야.

복 음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7-14

¹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⁷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뒷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⁸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뒷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⁹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¹⁰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¹¹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¹²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¹³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¹⁴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29일 월요일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제1독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1,17-19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¹⁷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18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 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19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사편 71(70),1-2,3과 47ㄷ,5-6ㄷ,15ㄴㄷ과 17(◎ 15ㄴㄷ 참조)

-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웁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웁니다. ◎
-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5,10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7-29

그때에 17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 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 하였던 것이다. 18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19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

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²²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²³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²⁴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²⁵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²⁶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²⁷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²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²⁹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30일

연중 제22주간 화요일

제1독서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10-16

형제 여러분, ¹⁰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 하십니다. ¹¹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¹²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¹³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¹⁴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¹⁵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

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¹⁶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8-9.10-11.12-13ㄱ.13ㄷ-14(◎ 17ㄱ)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려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복음 환호송

루카 7,16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31-37

그때에 ³¹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³²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³³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³⁴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³⁵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³⁶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이가 권위와 힘

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³⁷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8월 31일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제1독서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3,1-9

¹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²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었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³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⁴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⁵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⁶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⁷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⁸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샀을 받을 뿐입니다.

⁹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12-13,14-15,20-21(◎ 12ㄴ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
-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땅에 사는 모든 이를 지켜보신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 하나 빛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속속들이 헤아리신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 기뻐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가 신뢰하네. ◎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38-44

38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39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40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41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2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4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⁴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